

나주 목사골로타리클럽, 어르신들께 ‘시원한 바람’ 선물

자이아파트 경로당에 선풍기·제철 과일 전달...



나주 목사골로타리클럽 회원들이 경로당에 선풍기와 제철 과일을 전달하고 있다.

/나주시 제공

나주 목사골로타리클럽이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서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돕기 위해 선풍기와 제철 과일을 전달하며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나주 목사골로타리클럽(회장 임기진)은 지난 7일 나주시 송월동 자이아파트 경로당을 찾아 선풍기 3대와 수박, 복숭아, 포도 등 제철 과일을 전달했다. 이번 나눔은 폭염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냉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이아파트 경로당에는 에어컨이 설치돼 있지만 선풍기가 없어 실내 공기 순환과 냉방 효율을 높이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소식을 접한 목사골로타리클럽이 지원에 나섰다.

이번 임기진 회장은 선풍기와 과

일을 전달한 뒤 자이아파트 경로당과 목사골로타리클럽 간 자매결연을 제안했다.

일회성 지원을 넘어 정기적인 교류와 봉사활동을 통해 어르신들의 생활 속 어려움을 살피고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겠다는 취지다.

경로당 어르신들은 폭염을 피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선풍기와 제철 과일을 기탁받은 데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다.

목사골로타리클럽은 평소에도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과 봉사활동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나주시 배미 10kg 550포(2200만원 상당)를 기탁해 저소득 다자녀 가정과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했다.

/서성택 기자

담양군, ‘담양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박차

담양군농업기술센터는 최근 국립목포대학교 담양캠퍼스에서 담양군 치유농업연구회 회원을 대상으로 ‘담양형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2차 전문가 자문’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자문은 국립목포대학교 강영란 교수가 맡아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를 구체화하고, 참가자 기본 욕구 검사 실습과 50대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치유농업 접근 방향, 효과 평가 도구 활용법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담양군은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농가별 치유농업 프로그램과 평가 체계를 보완하고, 오는 24일 3회 차 전문가 자문을 통해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과 운영 방향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강종연 기자

화순군,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화순군(군수 임지락)은 올해 8월분 주민세 개인분 28,652건, 3억 2천만 원을 부과·고지하고, 주민세 사업소분 4,055건, 5억 원에 대한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11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지난 외국인에게 부과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현재 화순군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와 법인(재단·단체 포함)이 신고·납부 대상이다. 특히 주민세 사업소분은 2021년부터 신고·납부 방식으로 전환됐다. 화순군은 납세자들이 기한 내 주민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를 이어갈 계획이다.

/남호경 기자

농촌진흥청, 영광군 온열질환 예방 현장 방문

드론 운용 및 온열질환예방활동요원 우수사례 현장 지도·점검



영광군 관계자들이 온열질환 예방 플래카드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영광군청 제공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일 농촌진흥기관과 온열질환활동요원 및 (사)영광드론협회 드론봉사단 등의 관계자들과 함께 협업하여 농업인의 온열질환 예방과 안전한 영농을 위한 현장점검에 나섰다.

이번 현장점검에는 농촌진흥청 농촌지원국(국장 노형일)과 전남 광주통합특별시농업기술원 기술지원국(국장 박용철) 등 관계자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군의 온열질환 예방 추진상황과 현장 대응사례를 공유하며 농작업 안전을 도모하

였다. 첫 일정으로 군남면 일원에서 드론을 활용한 항공비행은 넓은 농경지를 효율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 폭염 취약시간대 농업인의 안전을 살피고, 이상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우수한 사례로 평가되었다.

이어 배수읍 고추 재배 농가를 찾아가 영광군4-H연합회(회장 강수성) 온열질환예방활동요원의 현장 활동 동참과 농가 목소리를 경청하였다. 활동 내용으로는 폭염 속에서 고추 수확 작업자의 충분한 수분 섭취와 휴식을 당부하며, 폭염 극복을 위한 예방 물품을 전달하는 등 농작업자의 안전을 위한 예방 활동을 함께 펼쳤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농업인이 실제로 영농 현장에서 겪고 있는 폭염에 따른 애로사항도 청취하고,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현장 대응방안과 유관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강화를 논의하였으며, 현장 목소리를 상급기관에게 전달하였다.

/김진기 기자

장성군 김한중 군수 “총력 다해 현안사업 국비 확보”

국회 방문해 조계원·정진욱 의원 면담...산림문화원 사업비 등 건의

장성군이 지역의 미래를 이끌 핵심 현안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최근 김한중 장성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이 국회를 방문해 환경, 국토, 산업, 문화 등 각 상임위원회 소속 이진태, 조계원, 정진욱, 염태영 의원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김 군수가 건의한 사항은 △산림문화원 조성 △첨단3지구 북측진입도로 개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 △장성 베이스블 스테이파크 조성사업이다.

‘산림문화원 조성’은 축령산 편백숲 일원에 춘원숲기념정원, 교육체험센터 등을 만드는 사업이다. ‘춘원’은 장성 편백숲을 일군 독립가 임종국 선생의 호다. 군은 산림문화원이 도농 상생형 체류관광 거점으로 기능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에 일조할 것으로 전망한다.

광주연구개발특구와 연계된 ‘첨단3지구 북측진입도로 개설사업’은



김한중 군수(우), 정진욱 의원 사진

/장성군 제공

산업 물류망 확충에 필수적인 기반 구축사업이다. 제조업과 연구 및 개발 산업용지 간 도로가 분리되어 대형 차량의 이동이 불편한 현 상황을 개선해 산업 간 융합에 속도를 더한다.

‘유기성 폐자원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은 가축 분뇨와 유기성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해 수질과 토양

오염을 막고 바이오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보함과 동시에, 탄소중립을 추진하는 국가의 환경 정책 이행에도 기여할 수 있다.

‘장성 베이스블 스테이파크’는 야구 전지훈련과 체류형 관광을 연계한 스포츠 관광 복합거점이다.

/김재섭 기자

황토갯벌에서 자라는 농산물

양파, 낙지, 고구마, 송어 등 자연의 보고... 황토로 무안